주간 테러동향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4.2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○ 美 싱크탱크, '수단 사태는 서방 국가들의 잘못' 분석

- 4.24 외신은 美 랜드(RAND)연구소가 "수단의 비극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군벌 실력자들이 권력을 순순히 양보할 것이라고 믿은 서방측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"는 기고문을 발표했다고 보도

※ '미완의 수단 민주주의' 공저자인 「저스틴 린치」도 수단 민주화를 바라는 미국 등 서방의 미숙한 개입이 이번 수단 유혈 충돌의 계기가 됐다고 분석

유 럽

○ 佛, 파리 유대인교회당 테러 용의자에게 '종신형' 선고

- 4.22 언론은 프랑스 법원이 파리 유대인교회당 폭탄테러* 사건 용의자인 「하산 디아브」(69세, 레바논계 캐나다人)에게 '종신형'을 선고하였는데, 일각에서는 '사법 오류'를 주장하며 신병인도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

* '80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에서 유대인 사회를 겨냥한 최초의 공격(사망 4·부상 46)이며, 同人은 1차례 체포된 적 있으나 무혐의로 석방('18년)

○ 독일, 은행 ATM기 폭파 사건 급증

- 4.24 언론은 독일에서 은행 ATM기를 폭파해 현금을 강탈해 가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, 지난해 ATM기 폭파 사건은 500건 가량으로 범인들은 주로 네덜란드 국적자라고 보도

※ 네덜란드가 야간 지점을 폐쇄하고 ATM 보안을 강화하자 네덜란드와 접경한 독일 서부 지역에서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

○ 조지아, ISIS 고위 지도자 체포

- 4.25 조지아 국가안보국(SSG)은 동부 카케티아州에서 ISIS의 고위 지도자로 지목된 조지아 국적의 「말카즈 팍사슈빌리」를 외국 테러 조직 가담 및 테러 활동 지원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발표

※ SSG국장은 同人이 지난 2013년 조지아를 떠나 ISIS에 합류하여 2015년까지 테러 공격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하나, 同人은 혐의 부인 中

아 · 태평양

○ 日, 'G7 정상회의' 대비 히로시마 경계태세 강화

- 4.20 언론은 지난 15일 발생한 일본 총리 습격 사건을 계기로 한달 뒤 G7 정상 회의가 열리는 히로시마 경계태세 강화를 위해 대규모 경찰 투입, 대중 접근 방지 대책*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

  * 정상회담 기간 주민 식별증 소지자 外 출입 금지, 교통통제, 호텔·평화기념 공원 주변 울타리 설치 및 회의장 주변 선박 항해 제한 등

중 동

○ 이스라엘, 올해 시리아 영토 內 親이란 세력 39명 사살

- 4.25 언론은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 발표를 인용, 이스라엘이 올해 시리아 영토에 14회에 걸친 공격을 가해 누적 사망자가 39명에 달하며 사상자 대부분은 혁명수비대 및 헤즈볼라와 관련된 親이란 세력이라고 보도

  ※ 이스라엘은 자국과 접한 시리아에 헤즈볼라 등 親이란 무장세력이 주둔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, 24일에도 골란고원 인근 근거지를 포격

아프리카

○ 알카에다 지부, 말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 살해 배후 자처

- 4.23 언론은 美 온라인 테러감시단체 시테(SITE) 발표를 인용,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단체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그룹(JNIM)이 지난 18일 서아프리카 말리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살해한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

  ※ JNIM은 지난 19일에도 말리에서 軍을 공격하여 7명을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

○ 부르키나파소, 군복 입은 괴한에 민간인 60명 사망

- 4.24 언론은 부르키나파소 북부의 한 마을에서 군복을 입은 괴한들에게 민간인 60명이 살해되었으며, 최근 지하디스트(이슬람 성전주의자)들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

  ※ 괴한들은 오토바이와 픽업트럭을 이용해 마을을 급습하였으며, 부상자들은 의료 시설에서 치료 중

최근 주요 테러사건 Weekly Terrorism Trends

파키스탄, 카라치 대학교 內 중국인 겨냥 자폭테러

○ '22.4.26「샤리 발로치」(30세, 교사)가 카라치 대학교內 공자학원(중국문화 전파) 인근에서 차량폭파 테러를 자행, 중국인 원장 등 4명 사망 · 4명 부상

* 외신에서는 '여성테러리스트가 중국인을 겨냥한 테러에 가담한 것은 처음'이라고 언급

○ 발루치스탄 해방군(BLA)은 同 테러 배후를 자처하며, "중국을 겨냥한 테러에「샤리 발로치」가 직접 자원했다"고 언급

- 이들은 중국이 '13년부터 파키스탄에서 진행하고 있는 '一帶一路*' 사업 부작용(이익독점 등)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인 테러를 지속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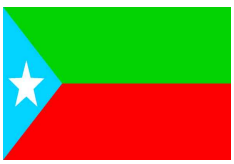
* 중국과 아시아·유럽을 연결하는 해로(一帶)·육로(一路) 구축을 목표로, 현재 파키스탄 과다르港·중국간 철도 등을 연결하는 경제회랑(CPEC) 사업 진행 중

○ 테러 직후「샤리프」파키스탄 총리는 中 대사관을 방문하여 '양국간 우의는 지속될 것'이라며, 테러 배후세력 색출 등을 약속

○ 한편, '22.7.5 파키스탄 당국은 同 테러 기획자「벅스」를 체포

테러 단체 Weekly Terrorism Trends

< 발루치스탄 해방군(Baluchistan Liberation Army) >



■ **(목 표)** 파키스탄·이란·아프간內 발루치스탄족 독립국가 건설('99년 결성)

※ 테러단체 지정 : 영국·파키스탄('06년), 미국('19년)

■ **(연계세력)** 탈레반, 발루치공화군(BRA), 발루치해방전선(BLF) 등

■ **(활동지역)** 파키스탄 발루치스탄州(이란 및 아프간 접경 산악지역)

■ **(주요활동)** ① '00.7 파키스탄 발루치스탄州 재래시장에서 폭탄테러 37명 사상

② '10.12 발루치스탄 주지사 차량 폭탄테러로 주지사 등 8명 사상

③ '13.7 발루치스탄州 해군기지 공격으로 14명 사상